

동아시아 아동문학과 정전의 조건

—‘성인 본위’의 아동문학, ‘아동본위’의 아동문학

—두전하,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소명출판, 2019)

박종진*

1.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의 의미와 전체구성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은 저자가 자신의 박사논문을 근간으로 해서 엮어낸 연구서이다. 연구자로서 단독으로 내놓는 첫 번째 성과이기도 하다. 저자는 ‘동아시아’를 주요 화두로 아동문학을 연구하면서, 서방 아동문학과 확연히 구분되는 동아시아 아동문학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최근 들어 ‘한·중·일 평화그림책 시리즈’, ‘동아시아 대표동화 시리즈’, 『동아시아 아동문학사』 등 관련 서적들이 연달아 간행되면서 동아시아¹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연구자들의 협동 작업이었다면, 이 책은 연구자 단독으로 한국

* 전주교육대학교 강사, pmirine92@gmail.com.

1 원종찬은 ‘동아시아’의 범위에 대해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경우는 물론이고,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아동도서 출판시장은 산업화·도시화와 함께 급속한 신장세에 있다. 이들 나라와의 인적·물적교류가 날로 증대하고 있는바, 일본과 북한을 여기에 다한다면 우리와 관련이 깊은 동아시아 아동문학의 경계가 어렴풋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밝혔다. (원종찬, 『동아시아 아동문학의 상호인식』, 『동아시아 한국문학을 찾아서』, 소명, 2015, 171면.)

·중국·일본 삼국의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을 고찰한 연구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

이 책은 비교문학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1920~30년대, 그 가운데에서도 카프·좌련·나프의 활동시기²를 중심으로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을 고찰했다.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을 둘러싼 역사를 전반부에 살피고, 구체적인 작가와 작품에 대한 고찰을 후반부에 배치했다. 저자는 한국·중국·일본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이 아동문학사 전개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전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중국 저우쥘런의 용례에 따라 ‘성인 본위’의 아동문학과 ‘아동 본위’의 아동문학이라는 관점을 채용, 아동문학은 ‘성인 본위’가 아닌 ‘아동 본위’의 문학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2.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에 대한 평가 및 주요 특징

이 책은 머리말과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에서는 현시점에서 한·중·일 세 나라의 아동문학이 한 자리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당위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한다. 서문에 의하면, “지금 한국 아동문학연구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과제는 동아시아문학 또한 세계 문학의 바탕 위에서, 한국 아동문학을 재검점하고 해명하는 것”이며, “비교문학의 시각은 한·중·일, 더 나아가 동아시아 아동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해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2 한국 카프KAPF 시기는 1925~35년, 일본 나프NAPF가 1928~32까지 존재했고, 중국에서는 좌련左聯이 1930~36년까지 활동했다.

것”이라고 한다. 그간 한국 아동문학에서는 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근대’ ‘교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 책에서는 한·중·일을 비교 대상으로 두고 역학관계를 살필 수 있는 ‘동아시아적 시각’을 제시한다. 저자는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을 일국적 차원에서 보면,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와 영향 속에서 전개되었던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을 비교연구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카프·좌련·나프 시기의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은 이후 한·중·일 3국의 아동문학 전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한국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을 더욱 깊이 해명하기 위해서, 중국·일본의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과의 비교 연구가 절실하다고 연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제2장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의 논리」에서는 아동문학 전사(前史)를 정리, 각국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었는가 하는 과정, 그리고 국제연대와 교류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이와 같은 연대와 교류가 당시 각국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의 이론 창작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폈다.

일본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의 출발점은 1926년 6월 『무산자신문』의 ‘어린이 세계’란 개설이다. 1928년 10월 신흥동화작가 연맹이 발족되면서 ‘반자본주의적 사회의식을 갖는 아동문학 작가’들을 폭넓게 규합하고자 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은 일제의 극심한 탄압에 의해 30년에는 공식적 활동이 중단되고 말았다. 창작방면에 있어서 평가받는 작품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일본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은 “동심주의에 기반을 두었던 초기 아동문학을 부정하며, 당시 일본 아동의 현실을 그리는

현실주의적 방법을 받아들였다. 이는 창작 기법상의 일정한 진전을 의미하며, 이후 일본 아동문학의 전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38면)고 평가한다. 실제 일본 아동문학에서도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의 전개는 역사적으로 ‘아동문학의 비약’³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에서는 1925년 카프 결성과 함께 사회주의가 고조되자 소년운동에서도 방향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마르크스주의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서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은 하나의 시대사조가 된다. 아동문단에서는 잡지 『별나라』(1926~35), 『신소년』(1923~34)이 주도하게 되고, 방정환이 주도한 『어린이』에도 노동하는 소년·소녀들의 모습이 표지로 등장하고 송영의 작품이 실리기도 한다. 아동문학에서는 “공상보다 현실미, 허영보다 실천성”이 강조되었다. 한국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에 대해서는 “도식성과 설교성이라는 공통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급주의 소년소설은 리얼리즘의 교두보를 쌓았다고 볼 수 있다.”⁴는 평가가 있다. 1930년대 중국 좌편 역시 “아동문학을 아동독자에게 계급의식과 투쟁 관념을 전달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은 좌익 문예운동의 제창 하에 중국 아동의 현실 생활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1930년을 전후로 뚜렷한 사조로 등장한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에서는 한·일, 중·일간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마키모토 구스로가 간행한 프롤레타리아 동요집 『빨간 깃발』 표지에 한글로 ‘프롤레타리아 동요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마키모토의 동요를 임화가 한글로 번역한 동요를 싣고 있다는 점에서 긴밀

3 “불만한 작품을 남기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도 다소간의 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운동이 담당한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은 동심주의에 기초한 다이쇼기의 문학적 동화 기법을 부정하고, 일본 어린이의 현실을 그리는 리얼리즘 기법을 도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는 역사적으로 보아 아동문학의 비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上笙一郎, 『兒童文學の歴史』, 『兒童文學概論』, 東京堂出版, 1970, 199면.

4 원종찬, 「제1부 한국의 아동문학」 『동아시아 아동문학사』 청동거울, 2017, 51면

한 상관관계를 추측하고 있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루쉰, 마오둔 쩡쨔꾸어 등 일반문학의 거두들이 중국 아동문학 비평에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특히 아동문학의 본질을 묻는 ‘조언수어’논쟁에도 활발하게 참여하며 아동문학의 방향을 잡아갔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에서 「다린과 쇼린」과 같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 아동문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19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중반까지 아동문학 개론 및 아동문학 비평 이론이 다수 출판되었다는 점이다. 좌련 시기 중국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은 소련이나 일본의 아동문학 이론이 폭넓게 수용되고 있었다.

제3장 「프롤레타리아 동화·아동소설」에서는 동화와 아동소설을 둘러싼 논의와 이론 전개 및 구체적인 작품을 분석했다. 카프시기 한국 아동문학 비평에서는 “아동문학의 공상성을 부정하고 현실성과 계급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져, 결과적으로 “동화가 거의 사라지고 아동소설이 주로 창작되도록 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된 시기였다고 평가”받는다. 저자는 “이러한 특징은 비단 카프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동화장르가 발달하는 것을 가로막고 아동소설 창작이 주를 이루는 결과를 낳았다.”(84면)고 평가한다. 중국에서 30년대 초반에 불거진 ‘조언수어’논쟁은 아동문학의 교육성, 환상성에 주목한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5.4 운동 이후 전 사회적으로 벌어진 동화 및 아동작품에 관한 총괄적인 논쟁”이었다. 이러한 논쟁을 거치며 좌련시기에 중국 아동문학에서 ‘환상성’을 주조로 하는 동화의 성격이 명확해지게 된다.

프롤레타리아 아동소설의 특징으로는, ①계급 대립과 계급의식의 묘사, ②현신과 인고·반항과 투쟁이 두드러졌다. 또한, 프롤레타리아 아동소설은 현신과 인고·반항과 투쟁을 그리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웃

음’은 찾아보기 힘든데, 이 시기 ‘재미’와 ‘웃음’을 전하고자 노력한 작가로 한국의 이주홍과 중국의 장텐이의 작품은 주목할 만하다. 이주홍은 대표작 「돼지콧구멍」 「군밤」 같은 작품을 통해 계급 대립을 드러내면서도 웃음을 전지하고 있고, 장텐이 역시 프롤레타리아 투쟁을 이야기하면서도 독자들의 웃음을 적절히 유발하는 「꿀벌」 같은 아동소설을 발표했다. 프롤레타리아 동화의 특징은, ①민담의 수용 양상, ②반제국주의·민족의식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장텐이의 장편 「대머리 마왕 투투」는 민담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일본 에구치 칸의 동화 「어느 날의 도깨비섬」은 일본 민담을 차용하면서 전복시킨 작품으로 흥미롭다. 동화에 있어서도 인상적인 작품을 남긴 것은 한국의 이주홍과 중국 장텐이의 동화였다. 이주홍에 대해 저자는 놀이정신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주홍의 놀이정신은 계급의식에 발이 묶여 있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풍자를 넘어 광활하고 자유로운 환상성의 구현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 했던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반면 장텐이에 대해서는 “아동의 놀이정신을 강조하는 예술관을 토대로 과장·변형·풍자·괴이 등의 표현 수법을 활용하여 사회 전체의 본질을 드러내고, 아동독자들로 하여금 웃으면서 사회 현실을 깨닫게 했다.”고 높이 평가한다. 장텐이의 대표작 「다린과 쇼린」이 오늘날까지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는 요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제4장 『프롤레타리아 동요·동시』에서는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운동 시기에 전개된 동요·동시에 관한 주요 논의와 이론에 대해 살폈다. 동요·동시의 경우에는 프롤레타리아 아동소설동화에 비해 현재까지 사랑받는 작품을 찾아보기 어렵다. 운동성을 강조하는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 특성상 특히 파급력이 큰 동요에 주목하여 다수의 작품이 창작되고, 적

지 않은 파급력을 갖기도 했다. 한일 양국에서는 동요가 성행, 프롤레타리아 동요집도 출판되었다. 여기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동요집으로 한국의 『불별』과 일본의 『작은동지』를 비교 연구했다. 『불별』은 2000년 이후 자료가 발굴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발간된 일본 『작은 동지』와의 비교는 프롤레타리아 동요운동의 특성을 고찰하는데 더없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 이원수, 윤석중, 중국의 토싱즈, 일본 시마다 아사이치의 작품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들 동요에서는 ‘사회성’을 강조하면서도 ‘아동성’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작가정신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윤석중에 대해서는, 현실 아동이 처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도, ‘아동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동요의 특성으로 여겼다고 분석하며, “그의 동요·동시관은 ‘성인 본위’의 아동문학이 아니라, ‘아동본위’의 아동문학에 가까웠던 것”으로 평가한다. 일본의 시마다 아사이치의 작품도 사회성에 관심을 두면서도, 결코 아동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이원수의 프롤레타리아 동시들은 현실주의에 도달하는 성취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아동 독자에 관한 고려 또한 놓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원수는 ‘아동본위’의 프롤레타리아 동시를 창작함으로써, 한국 프롤레타리아 동요동시 가운데 가장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일구어 낼 수 있었다”(244면).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저자는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동요·동시작품들은 결국 ‘아동본위’의 문학이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3.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에서 아동문학의 본질을 탐구하다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은 한국·중국·일본의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을 논함에 있어, 각국의 역사적 배경, 아동사적 전개, 시대상황, 주요 작가, 작품, 특징 등 방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단단한 구조가 느껴진다. 또한 객관적인 정보와 함께 저자의 일관된 관점과 주장이 끝까지 흩어지지 않는다. 한국·중국·일본의 많은 작품들이 제시되었고, 각 시기별, 장르별 평가도 드러났다.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는 앞으로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책을 읽어가면서 검토·보강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점을 몇 가지 짚어두고자 한다.

제2장 75면을 보면 중국에서 1930년 이후 출판된 주요 아동문학 이론서 목록이 실려 있다. 본문을 통해 중국 아동문학에서는 일본 아동문학 이론서의 번역은 물론 소련의 문학이론 번역이 매우 활발했음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에서는 카프 시기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전 시기에 걸쳐 아동문학 관련 단행본이 활발하게 출간되지 못했다. 이론 논의를 다룬 책은 물론이고 창작 작품을 수록한 작품집 역시 매우 드물었다.”(76면)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약간 보충 설명을 하자면, 저자가 지적한 대로 1930년대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에 관해서 이론서는 물론 작품집 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초라한 실정’임은 인정할 수 있다. 1930년대 한국 계급주의 소년소설을 연구한 박태일에 따르면, 당대 계급주의 문학인이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속한다고 본 책은 “『프로레타리아 동요집』 『불별』(중앙인서관, 1931)과 『소년소설 육인집』(신소년사, 1932), 그리고 번역동화집 『왜?』(별나라사, 1931)와 『어린 페터』(별나라사, 1931)”라고 한다.⁵ 그렇기

는 해도 “일제 시대 전 시기에 걸쳐 아동문학 관련 단행본이 활발하게 출간되지”(76면) 못 한 것은 아니다. 최근 조사⁶를 통해 “일제시대 전 시기에 걸쳐” 아동문학 관련 단행본은 동화, 아동소설, 동요, 동시, 아동극 등 아동문학의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약 150종 이상의 단행본이 간행(추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조사가 아니더라도 당시 신문, 잡지를 들추어보면, 지상에는 아동문학 관련 도서의 출간 예고 및 출간 안내가 상당히 빈번하게 게재되었다. 또 하나는, 인명표기에 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글, 중국어, 일본어 자료를 읽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 작가명 표기의 혼란이 종종 발견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외국인명 표기는 기본적으로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출판사마다 다른 표기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분명한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중국 아동문학의 경우, ‘쩡쩡뚜어’가 같은 페이지(47면)에서 ‘정젠두오’로도 표기되어 있고, ‘마오둔’과 ‘신이안방’이 각각 다른 인물처럼 소개되기도 해서, 중국 작가명이 익숙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같은 작가인지 다른 작가인지 혼란스러웠다. 일본 작가 명에서는 요고타니 키→요코타니 테루, 이노쇼우 쯔우→이노 쇼쥬, 마주야마 후미오→마쓰야마 후미오, 콘토후 고우찌→곤도 코지, 나카모토 미산로→나카모토 야사부로, 다게다 아오야게→다게다 아코 등은 이름을 잘못 읽은 경우에 들어간다. 이 책은 이후 동아시아 아동문학 연구에 있어서 선행연구로 빠짐없이 등장할 중요한 자료

5 박태일, 「1930년대 한국 계급주의 소년소설과 『소년소설육인집』,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본문 인용은, 『소년소설육인집』, 도서출판경진, 203면.

6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정환연구소 『한국 아동서 장서개발 방안 연구-대한 제국기~1945년을 중심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9.12. 참조.

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검토·보강은 필요할 것이다.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은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분출된 매우 특수한 형태의 문학(280면)이다.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이 본격적으로 두드러지는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성격상, 이념성과 투쟁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성인 본위’의 아동문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저자 역시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은 ‘운동’이었던 까닭에 ‘운동성’ ‘이념성’이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역시 ‘아동문학’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성’과 함께 ‘아동성’·‘문학성’이 모두 고려되는 ‘아동 본위’의 문학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 이주홍의 『개구리와 독집이』 『호랑이이 약이』, 중국 장톈이의 『다린과 쇼린』 『대머리 마왕 투투』 작품을 ‘아동 본위’의 동화로 소개한 점이 흥미롭다. 저자가 내내 염두에 두고 고려한 문제는 시대적인 요건, 상황, 특수성들이 아무리 달라져도 아동문학은 끝내 ‘아동본위’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에 대한 흥미와 함께, 한·중·일 아동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저자의 관점이 일관되게 ‘아동 본위’의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에 집중된 것은, “좋은 아동문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동문학의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282면)는 주장에서도 드러나듯이, 아동문학의 본질에 대한 탐구로 귀결된다. 이 책 머리말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1920-30년대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문학사적 작업일 뿐만 아니라, 서방 아동문학과 확연히 구분되는 동아시아 아동문학의 특성에 관한 탐구였다. 이에 대한 고찰은 한국 아동문학의 특질을 살피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 ‘아동문학’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탐구이기도 한 것이다.